

[종합·해설]

광주 시의원 의정비 서울의 62%

4,231만원...7개 대도시중 최하위 5개 구의원 평균 2,791만원

광주 시의원과 5개구 구의원의 의정비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결정, 서울 지역에 비교하면 60%~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시의원 의정비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7개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로 책정됐으며, 16개 광역의회 가운데서는 12위를 차지했다.

또한 구의원의 의정비는 평균 2천791만원으로 시의원(4천231만원)의 66% 수준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보다는 25%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광주시와 5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각각 시의원과 구의원의 의정비를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 등 모든 행정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의정비가 의원들에게 지급(1월부터 소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원 의정비는 4천231만원으로 지난해 3천120만원(회기수당+의정활동비)에 비해 35.6% 오른 액수지만 서울시의원(6천804만원)의 62%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부산은 5천637만원이었으며, 인천 5천100만원·대구 5천40만원·대전 4천908만

원·울산 4천523만원 등의 순이었다.

광주 구의원의 의정비는 서울 구의원의 70% 내외였으며,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 순위로 액수가 매겨졌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받는 광산구의원의 의정비는 2천800만원이며, 다음으로 북구 2천821만원·서구 2천790만원·동구 2천778만원·남구 2천766만원 등의 순으로 공교롭게도 재정자립도 순서와 같은 액수였다.

시는 오는 6월20일 의정비를 지급하며, 서·남·북구는 지난 4월 관련 조례 개정을 끝마쳐 이달 20일 의정비를 지급한다. 오는 6월 조례 개정이 예정된 동·광산구는 7월20일부터 의정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시 의정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다 시민단체들도 소급제 적용이 차기 회회에서

■광주 시·구의원 의정비

광주시	4,231만원 (월정수당 2,431 의정활동 1,800)
동구	2,778만원 (월정수당 1,458 의정활동 1,320)
서구	2,790만원 (월정수당 1,470 의정활동 1,320)
남구	2,766만원 (월정수당 1,446 의정활동 1,320)
북구	2,821만원 (월정수당 1,501 의정활동 1,320)
광산구	2,800만원 (월정수당 1,480 의정활동 1,320)

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시 의정비 지급과 관련한 소급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주민정서와 지자체 재정자립도, 주민 소득, 회회 활동 등을 의정비 결정 기준으로 삼아 심의했다"면서 "지자체의 재정과 주민들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의정비가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서범석 후보 농산물소비촉진 운동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2일 오이데이를 맞아 오이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우리 농산물소비촉진운동을 벌였다. 서 후보는 이날 목포 중앙시장과 청호시장을 찾아 "순천·구례·보성 등에서 생산하는 오이는 다이어트와 미용,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민들을 위해 다가올 여름 아이스크림보다 친환경 오이주스를 마시자"고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앞서 서 후보는 1일 같은 당이 순천시장 후보와 함께 순천 성신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직접 점심 배식을 하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약속했다.

30주년을 준비할 중대한 시기"라면서 향후 30주년 광주는 아시아 민주인권의 핵심도시이자 세계 생명 평화 NGO 운동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또 '광주 생명평화인권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생명과 평화, 인권'을 비전으로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포함시키고 ▲인권과 평화, 생명을 주제로 교류 확대를 통한 국제도시 이미지 강화 등을 주장했다.

정종득 목포시장 개선 도전

○정종득 목포시장이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3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정 시장은 이날 회견에서 "목포를 '기회와 희망의 땅'에서 '변명과 축복의 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간 동북아 해양, 관광, 물류의 거점도시 건설을 위해 목포대교 착공, 삼학도 복원화 사업, 목포신항 활성화에 총력을 경주해왔다"며 "목포가 전남의 행정수도로서 서남권 발전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기 위해 무안, 신안, 영암, 해남군을 아우르는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이에 앞서 목포시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이종범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박준영 후보, 서구청장 후보 지원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2일 같은 당 전주인 광주 서구청장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박 후보는 이어 "전 후보처럼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재만이 서구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며 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무안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은 물론 전북을 돌며 선거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서삼석 무안군수 공식 출마 선언

○서삼석 무안군수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5·31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서 군수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4년간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평가를 받을 시간이 다가왔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꿈과 희망이 약속된 21세기 무안의 시대를 반드시 이뤄낼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선 4기에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건설과 노인들이 살기 좋은 노인친국 건설, 공직자와 군민의 사기를 위한 무안시 승격 등을 3가지 목표로 삼고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군수는 이날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고대석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하게 됐다.

박용두 후보 목포서 선대본부 출범

○박용두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3일 오후 7시 한국노총목포시지부 대강당에서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갑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들과 서남지역 출마자들, 민주노총 각 연맹·본부 대표, 민중연대, 농민회원 등 각계 대표들이 참가해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결의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이날 ▲농업수도 건설을 통한 신 성장 동력 마련 ▲개발보다 균등한 분배 ▲생태와 환경 보존 ▲소의 없는 복지 ▲진보자치제도 전격 도입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석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석원 민주당 무안 제1선거구 광역의원 후보는 무안군 성동로 618-1(061-454-3456)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3일 오후 2시 개소식을 갖는다.

한화갑 대표, 이낙연 원내대표, 최인기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소식에서 김 후보는 "호남 자존심 회복과 지역발전의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며 "반드시 승리, 민주당의 부활을 이끌겠다"고 밝힌 계획이다. /정희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당당 비례대표 후보 공모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박재순)은 2일부터 4일까지 광역(5명)·기초의원(32명) 비례대표 공직후보자를 공모한다. 신청서는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 열린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전남도당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접수해야 한다. 전남도당은 6일 공천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후보 추천 심사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5·18 민주묘지서 '광주정신 선언문'

○김재균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광주 정신 선언문'과 '광주 생명평화인권도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선언문에서 "지금은 2010년 광주광역

법원 "광주 복구청장 후보 결정 잘못" 민주 "결정 수용... 송후보 재공천키로"

'효력 정지 가처분' 12건 공천 유희증 예고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주 복구청장 후보를 다시 선정하는 등 무원칙한 공천 절차에 따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잘못됐으며 법원에 '후보자 선정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경선 탈락 후보가 광주·전남에서만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라도 상당한 유희증을 예고하고 있다.

2일 민주당은 대표단 회의를 열고 지난 1일 서울 남부지법이 광주 복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반명환 전 광주 시의회 의장이 제기한 '후보자 선정 결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 101조, 당규 9호 등 공직후보자 재추천 조항에 따라 광주 복구청장 후보를 전락 공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늦어도 이번주내에 복구청장 후보를 다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송광운 현 후보를 전락공천을 통해 다시 복구청장 후보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최종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전락공천을 통해 다시 후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상황상 복구청장 후보를 새로운 사람으로 선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며 송광운 현 후보가 다시 후보로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 1일 민주당 광주시 복구청장 후보자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반명환씨가 "열린우리당의 광주시장 후보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떨어뜨린 당의 결정은 무효"라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주당이 민주적 권리에 대한 절차를 근본적으로 침해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남준 광주시 행정부시장(왼쪽에서 두번째)과 5개구 복구청장들이 2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시·구청 권한대행'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시·구청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제공)

"후보자와 함께하는..."

시선관위, 1일부터 캠페인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D-30를 맞이해서 1일부터 3일간 '후보자와 함께 하는 희망 새책 키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선관위가 각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일명 '마법의 콩'을 전달한다는 것. 선관위에 따르면 이 '마법의 콩'은 1주일이 지나면 떡잎이 싹트면서

'공명선거'와 '정확선거'라는 글자가 나타나도록 만들었으며 1~3개월이 지나면 열매가 맺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5·31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선거 등이 표시된 새책을 보면서 스스로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보자가 앞장서 정책당당한 정책선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알 수 없는 나의 미래 운명을 바꾸고 희망을 주는 책!!

누가, 그 어린 소년에게 흥을 쏘아대고 광명을 확신했는가?
왜, 그의 운명을 갈가리 찢고 피눈을 나는 절망을 가져다주었는가?
한 남자의 땀속까지 시리게 밀려오는 감동적인 운명적 삶.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은 한 남자의 지독한 운명에 중독 될 것이다.

정재원 충격 실화 소설

운명 이야기

왜 해외에서까지 이 소설에 눈물을 흘리며 떠나간 조국의 땅을 찾아오는 것일까?

- 이 소설을 읽거나 읽고 그 눈물의 비탄에 빠져 수년 뒤 광고비율을 잃브 지원한 - 일본의 모비
- 7명이 사극한 출격사건의 현장에서 저자가 세게준 숫자의 인장으로 생명을 전진 - 미국의 모비
- 영민하일의 이름을 빼고 들고 이민을 갔다가 이 소설에 빠져진 반이 유희하며 눈물 흘린 - 미국의 1서
- 지살 가족의 죽을 등 혁명을 받고 제기한 사인사, 소설을 읽고 한국에 무작을 걸었던 - 호주의 5서
- 중국인들을 발견 못한 탁월한 숫자의 운명학에 감명하며 흥운의 숫자를 부여받고자 달려온 - 중국의 6서

나와 맞는 숫자를 알면 富有 大吉運을 당신의 손에 거머쥌 수 있다.

전화번호 · 금융비밀번호 · 자동차번호 · 주민등록번호 등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들, 저자가 개발한 행운의 숫자를 만드는 법이 책 속에 수록되어 있다. 자신이 가진 고유숫자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조한다. 숫자만 잘 선택해도 행복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대담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다.

한 남자의 기구한 운명을
눈물로 써 내려간 충격 실화 소설!

저자 정재원 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남부지역에서 태어났다. 198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0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성용연구소
T. 02)765-4724 ~ 5 / F. 02)765-4728
http://www.sinyoung.com / 한국노총·신성용연구소
책값 읽으신 후 저자께 송부해주세요!

영남 지역 법원에서 책값 독린 분에 한해 한 권만 반값 5천 원
부산사무소 부산시 부산진구 연제동 100리원 건너편 111동 303호
예약 전화 051-817-1600 / 011-888-5767
신청 : 합정신문 구독부회, 연수회